



사람을 품다
인권을 담다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펴낸날 2016년 5월

펴낸이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글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 인권교육기획과(04551)

전화 02-2125-9681~3

디자인 젊은기획

비매품

*이 목록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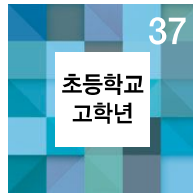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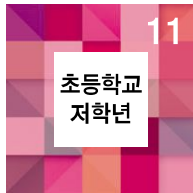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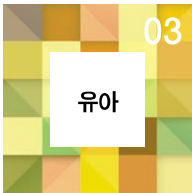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다양한 주제의 어린이 인권도서 200종을 목록 구성을 위해 유아편, 초등학교 저학년편, 초등학교 고학년편으로 나누어 도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용을 돕기 위한 도서명과 주제별 찾아보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목록 작성 방법

- 도서명
- 지은이 | 펴낸곳 | 펴낸날 | 쪽수 | 주제
- 내용

■ 목록 순서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유아



나무를 만져보세요

책은 보통 눈으로 보고 느끼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은 눈과 손으로 함께 보는 그림책입니다. 촉각 그림책이지요. 나무를 만져보고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이 그림책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점자 글씨를 함께 담았습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표현해서 점자 글과 그림을 손의 촉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그림책 작가는 시각장애인 아이들과 미술놀이를 하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뛰어 넘은 촉각 그림책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림책입니다. 나무 한 그루와 꽃, 과일, 사람을 함께 아우르면서 자연을 느끼는 감성까지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촉각과 시각적으로 함께 만나 차별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키우는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달라진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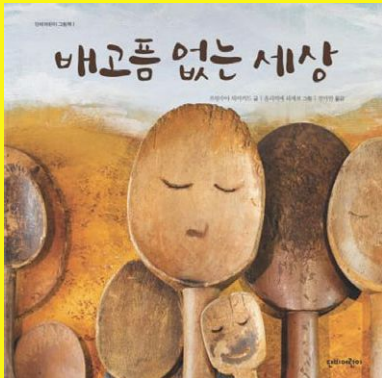
송혜승 글 · 그림 | 창비 | 2008년 | 24쪽 | 장애



배고픔 없는 세상

인간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감성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그림책의 열아홉 편의 짧은 글과 재치 있는 그림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밥을 기다리며 우는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냄비에 돌을 넣어 달구고 또 달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가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다 가뭄이 해소되었는데 이제 이곳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또 굶주림에 울어야 해요. 이런 곳곳의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지요. 우리들의 관심과 그들과의 교류를 통한 희망이 이러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희망입니다.



프랑수아 데이비드 글 · 올리비에 타에보 그림 |
전미연 옮김 | 단비어린이 | 2012년 | 52쪽 |
함께 사는 세상

초코곰과 젤리곰

서로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나요? 많은 쪽과 힘이 센 쪽이 늘 옳은 건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편견에 묻혀 있어요. 이 그림책은 달콤한 초코곰과 젤리곰을 통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과자처럼 달콤해진다!' 는 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세계 인권운동의 발단이 된 '로자 파크스' 사건을 달콤한 과자로 표현했다고 해요. 버스 앞쪽 백인 좌석에 앉아 끝까지 흑인 좌석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은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 나란히 앉을 수 없는 초코곰과 젤리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달콤한 과자 그림에는 웃음과 깊은 슬픔이 함께 하고 있어요. 왜 초코곰과 젤리곰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잘못된 선입견과 어딘가에 소속되어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사회를 만들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 속 초코곰과 젤리곰은 많은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 주는 '가장 맛있는 나라' 로 굳세게 걸어갑니다.

초코곰, 젤리곰 브라보!



안 케비 글·그림 | 박정연 옮김 | 한솔수북 |
2015년 | 32쪽 | 다양성



깜장 병아리

이기규 글 · 고은채 그림 | 여우고개 | 2014년 | 40쪽 | 다양성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아나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는 않나요? 이 그림책은 병아리들의 세상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슬며시 알아가게 합니다. 어른들은 어릴 때의 추억을 먹고 살지요. 그만큼 유아기 때의 인성교육은 중요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생각의 영역을 다양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도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날개 잃은 천사

마야 글 · 그림 | 임지영 옮김 | 고래이야기 | 2006년 | 40쪽 | 장애

동생이 장애가 있다면....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쉬쉬하지 않을까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도 그랬지요.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과 동생을 잘 보살펴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인데 동생은 날개를 잃어버려서 그러니 잘 보살펴 주어야한다’고 말하는 엄마의 말이 감동을 줍니다. 이 그림책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더 진실 되고 감동적입니다.



넌 (안) 작아

강소연 글 · 크리스토퍼 와이엔트 그림 | 김경연 옮김 | 풀빛 | 2015년 | 32쪽 | 다양성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잘한다’와 ‘못한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균보다 좀 낮으면 놀림 당하고 높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이 그림책은 재미있는 털복숭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알아갑니다. 작가가 어릴 적 겪었던 일상에서 느꼈던 놀라웠던 감성들을 코믹한 그림과 글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 정현지 그림 | 웅진주니어 | 2010년 | 32쪽 | 다양성

어른들이 선입견으로 차별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나보세요. 서로 다른 모습의 아이들, 준이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은하는 말이 없고, 슬기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찬이는 의족을 하고 있어 빨리 뛸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의 다름’은 차별의 근거가 되거나 같음이 되지 않아요. 말이 없는 슬기는 “내가 말이 없는 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 난 말은 좀 못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해.”라고 멋지게 자기를 표현하지요.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글·그림 | 김현주 옮김 | 한림출판사 | 2011년 | 32쪽 | 평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대포를 무지무지 쏘아보고 싶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임금님은 여우에게 대포를 쓰게 되고 대포수가 늘어나고.... 하지만 이 그림책의 모두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평화로운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림책의 끝부분에서 대포를 목욕탕으로 사용하지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룰루

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글·그림 | 최윤정 옮김 | 웅진주니어 | 1997년 | 20쪽 | 다양성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늑대와 토끼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지만 서로는 친구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놀이도 함께 하면서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위기가 닥치지만 서로의 믿음으로 다시 잘 극복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이 그림책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마법의 조막손

선천성사지장애아부모회, 노베 아키키, 시자와 사요코 글·다바타 세이이치 그림 | 고향옥 옮김 | 우리교육 | 2008년 | 40쪽 | 장애

손가락이 없다면 어떨까요? 화장실에서 혼자 옷을 벗고 입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친구들의 놀림으로부터도 이겨내는 마음의 힘도 필요하지요. 이 그림책의 조막손 아이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똑같이 놀고 싶고 똑같이 배우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누구나 그럴 자격이 있지요. 주인공 마법의 조막손은 재치 있게 잘 해냅니다.



못난이 내 친구

야마자키 요코 글·이모토 요코 그림 | 정근 옮김 | 언어세상 | 2002년 | 30쪽 | 관계의 소중함

못난이라고 놀림 받고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이 그림책의 고슴도치는 가시 때문에 누구에게 안기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서 친구가 없어요. 그때 못 난 애벌레를 구해주고 애벌레와 친구가 되지요. 애벌레는 예쁜 나비로 바뀌고 고슴도치는 그대로이지만 슬프지 않아요. 고슴도치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너구리아춤가가 있거든요.



민수야 힘내!

이오키 미치오 글 · 하마다 케이코 그림 | 이영준 옮김 | 한림출판사 | 2000년 | 32쪽 | 장애

누워서 만 지내야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책 속의 민수는 누워서만 지내요. 친구들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때 선생님이 민수를 업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민수야 힘내!"라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와 좀 다른 친구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친구라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해야 해요.



서로를 보다

윤여립 글 · 이유허 그림 | 낮은산 | 2012년 | 52쪽 | 동물권리

동물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이 그림책은 동물원 우리를 사이에 두고 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를 통해 동물들과 인간이 과연 '자기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치타, 쇠황학, 긴팔원숭이, 돌고래 등이 자연 속에 있는 모습과 동물원 안에 있는 모습이 보여 지면서 동물과 인간의 참된 권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나다운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렘 폭스 글 · 레슬리 스타움 그림 | 김기택 옮김 | 비룡소 | 2011년 | 32쪽 | 다양성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민족, 성, 사회 계층, 삶의 방식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활용한 글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장지현 옮김 | 보림 | 2006년 | 32쪽 | 장애

"안 들린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다니, 들린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볼 수 없는 건가 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그림책입니다. 장애는 그저 괴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보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열리는 더 풍요로운 감각의 세상이 있고, 누구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남과는 다른 능력이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캐롤린 캐슬, 데스몬드 투투 글·존 버닝햄 외 그림 | 이명희 옮김 | 마루별 | 2011년 | 48쪽 |
인권의 이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크게 말하거나, 작게 말하거나, 소리치거나, 속삭이거나,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몸짓, 손짓으로 나타내거나,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책은 어린이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존재의 가치를 다양한 그림을 통해 알려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 42조 중 15항을 골라 14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해

나카야마 치나쓰 글·야마시타 유조 그림 | 고향옥 옮김 | 고래이야기 | 2009년 | 40쪽 | 양성
평등

밥과 요리는 여자인 엄마가 해야 할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이 그림책 속 물고기 세계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고기들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평등한 남녀 관계를 보여 주지요.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재미있게 그려 놓았습니다.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초등학교
저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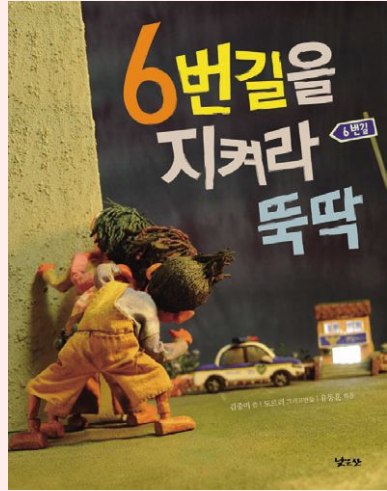


6번 길을 지켜라 똑딱

도깨비를 본 적이 있나요? 아,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거라구요? 이 책속 도깨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동네 땅 속에서 오래 오래 살던 도깨비가 나왔어요. 왜냐구요? 자기들이 잘 살던 곳을 누가 자꾸 두드리고 땅을 파고 시끄럽게 해서 나왔지요.

이 책은 지금의 마을에 나타난 꼬마 도깨비 형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자신들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서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인형 사진 그림책입니다. 실제 경험을 묘사하여 인형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풍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줍니다.

재개발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방해할 방법을 찾기도 하면서 마을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눈물겹도록 신도 나고 대견스럽습니다. 인형을 사실감 있게 만들고 사진으로 표현하여 마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개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른들의 욕심에서 파괴되어지는 자연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김중미 글 · 도드리 그리고 만듦 · 유동훈 사진 | 낮은산 | 2014년 | 60쪽 | 함께 사는 세상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비밀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돼!’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라서 당해야 하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예방과 대처의 방법을 ‘새’를 등장시켜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 속의 작은 새는 계속되는 큰 새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만 강압적 폭력은 피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작은 새는 부모의 말에 힘 얻어 사실을 말하게 되고 큰 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비밀을 갖게 된 어린 새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히 대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힘은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가 널 지켜 줄 거야.” 이런 믿음은 말 뿐 아니라 평소에 어른들이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아너미 베르브룩스 글 · 그림 | 지명숙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12년 | 44쪽 | 아동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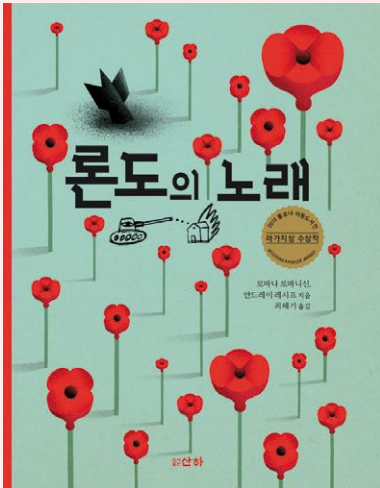


론도의 노래

평화와 전쟁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일부 어른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꽃이 노래하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다가왔지요.

론도라는 곳은 아름다운 꽃과 사랑이 샘솟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 전쟁이 다가와서 꽃도 노래도 사라졌어요. 론도의 세 아이는 이 마을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과 맞서 싸우지만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지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빛과 노래였어요.

이 그림책은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렬한 상징들을 이용하여 전쟁과 평화의 이미지를 대비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과 사랑이 가득할 때만이 폭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샘솟지요.



로마나 로마니신, 안드레이 레시프 글·그림 |
최혜기 옮김 | 산하 | 2015년 | 36쪽 | 평화



진짜 투명인간

가끔 우리는 학교 숙제도 하기 싫고, 엄마가 연습하라는 피아노도 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가 투명인간처럼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나는 칭찬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나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다 우연히 눈이 보이지 않는 피아노 조율하는 아저씨를 만나지요. 투명인간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짝을 이룹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아저씨에게는 모두가 투명인간인 거나 마찬가지죠. 주인공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저씨에게 색감을 알려주고 아저씨는 색감을 피아노 소리로 들려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둘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맨발로 잔디를 밟아 가면서 연초록색을 알려주고, 빨간 토마토로 빨간색을 알려주기도 해요.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마음의 소리로 아이와 시각장애인 아저씨의 색다른 교감을 함께 느껴보세요.



레미 쿠르종 글·그림 | 이정주 옮김 | 씨드북 |
2015년 | 32쪽 | 장예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강민경 글·서현 그림 | 현암사 | 2012년 | 98쪽 | 관계의 소중함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이나 좋은 성적 등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는 마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그린 동화책입니다.



같이 놀자, 루이!

레슬리 일리 글·폴리 딘바 그림 | 이승숙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랑 좀 다른 아이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루이라는 아이는 우리와는 좀 다르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루이에게는 허용이 되는 예외인 법칙들도 있어요. 책 속 주인공은 말하지요. '어떨 땐 좀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반엔 조금 다른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이를 위해서요' 루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 속의 아이들은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느껴 갑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글·그림 | 시공주니어 | 2011년 | 36쪽 | 평화

'안녕, 내 이름은 ...' 반갑게 인사하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책장을 넘기면, 각국의 굶주림과 전쟁, 노동으로 힘겨운 아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책을 통해 우리가 다른 모습을 지니고 다른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 지구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화는 함께 나눔에서 오지 않을까요?



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 코토프스카 글·그림 | 최성은 옮김 | 보림 | 2005년 | 39쪽 | 가족

'내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게 맞을까...' 많은 아이들이 가지는 궁금증이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 속 고슴도치 아이는 입양된 아이예요. 한 부부가 고슴도치 아이를 입양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책으로, 가시에 찔려도 안아주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그러자 점점 상처입고 가시투성이인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찾아가는 그림책입니다.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 줘!

고정욱 글 · 김명진 그림 | 한림출판사 | 2012년 | 116쪽 | 장예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누구나 용기가 필요하지요. 이 책 속 흥덕이는 늘 망설이고 두려움이 많았지요. 어느 날 친구의 도움으로 책읽기를 잘 하게 되고 무슨 일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흥덕이는 미진 이에게 결손 가정에서 오는 외로움을 보듬어주지요. 작은 어려움도 잘 견디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미진 이와 흥덕이는 희망과 긍정의 힘을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타마르 베레트-제하비, 로니 로젠틀 글 · 실비아 카비브 그림 | 김루시아 옮김 | 초록개구리 | 2011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내가 태어난 땅에선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 가야하는 아픔을 아나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이런 곳이 많아요. 이 그림책은 내전을 피해 난민촌으로 가는 쌍둥이 물루와 차가이 이야기 기입니다. 난민이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 온 네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그렸어요. 그림도 아이들이 살던 나라의 토속적이고 독특한 문양 등을 아이들이 그리고, 화가가 재구성하여 애잔함을 더하고 있어요.



굴러라 슈퍼 바퀴

고정욱 글 · 손지희 그림 | 뜨인돌어린이 | 2015년 | 72쪽 | 장예

장애가 심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놀람도록 똑똑한 휠체어가 나타났 다면 어떨까요? 장애로 몸이 뒤뉘리고 발음도 똑똑치 못한 주인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렵습 니다. 어느 날 주인이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속마음도 읽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는 재주 많은 휠체어, 힐링이! 사실은 이런 휠체어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장애인들을 위한 온전한 세상이겠지요.



까마귀 소년

아시아 타로 글 · 그림 | 윤구병 옮김 | 비룡소 | 2002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한

땅꼬마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었지요. 소년은 혼자 숨어서 조용히 지냈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땅꼬마의 존재 를 무시했지요. 땅꼬마는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학교생활을 보냈고, 소년의 내면적 보석을 한 선생님의 관심으로 찾았지요. 학예회 발표 때 낸 소년의 까마귀 소리는 그동안의 가슴 속 아픔과 슬픔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은 소년을 다시 보게 되 었고, 그 뒤로 땅꼬마 소년은 '까마귀 소년'이라 불렸다고 하지요.



까만 아기 양

엘리자베스 쇼 글 · 그림 | 유동환 옮김 | 푸른그림책 | 2013년 | 56쪽 | 자신의 소중함

모두 흰색인데 나만 까만색이라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의 아기 양들은 모두 흰색인데 혼자 까만 아기 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해요. 하지만 까만 아기 양은 다름에서 오는 특색을 찾아가요. 양치기 할아버지도 까만 아기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요. “아니야, 넌 내게 아주 소중한단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 다름에서 나만의 소중한 장점을 찾으면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상드라 푸아로 세리프 글 · 그림 | 문지영 옮김 | 한겨레아이들 | 2015년 | 32쪽 | 세대 간의 이해

할머니의 잃어버린 물건과 기억들을 도둑 까치가 물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리프 할머니. 치매로 점차 기억을 잃어 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자를 사서 두고 온 것에 당황스러워 하는 할머니를 다독이며 어두운 밤길,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지지만, 할아버지가 만든 멋진 드레스에 담긴 기억들은 영원하겠지요.



강이의 꽃밭

김효진 글 · 최정인 그림 | 파란자전거 | 2014년 | 112쪽 | 장애

장애인이 직접 쓴 동화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슬픔, 기쁨, 즐거움 등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고 늘 함께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아가게 하는 명쾌한 동화책이에요. 혹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지는 않을까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시다.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이재민 글 · 원유미 그림 | 노란돼지 | 2011년 | 50쪽 | 장애

아침에 햇살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땠나요?
보이지 않는 친구로부터 자연을 느끼는 다른 감성을 느껴보세요. 이 동화책은 섬세한 감성으로 서로의 다름에 대해 느끼면서 천천히 세상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임을 알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함께 누리는 진정한 세상을 맛 볼 수 있지요.



나도 학교에 간다

카리 린 윈터스글 · 스티븐 테일러 그림 | 이미영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0쪽 | 교육받을 권리

오늘 학교 가기 싫었나요? 지구 저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에이즈에 걸려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을 돌보렴. 학교는 그다음에 가도 돼.” 온종일 집안일을 하는 나쌀리에게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나와 우리

이선미 글 · 그림 | 글로연 | 2013년 | 46쪽 | 관계의 소중함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어색하여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던 적 없나요? 따돌림, 편 가르기 같은 친구관계로 상처 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넓은 눈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입니다. 한 면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한 면은 ‘우리’ 라는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그림책으로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그림책 가운데 지점에서 서로 만나 상쾌하게 알아갑니다.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윤진 글 · 하의정 그림 | 초록우체통 | 2009년 | 170쪽 | 가족

나는 내 가족 구조에 대해 만족스러운가요? 10살 또래의 아이들 5명이 각각 다른 구조의 가족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아이,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 입양된 아이, 부모님이 재혼한 아이, 엄마가 외국인 아이 등 각각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과 행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요. 행복에는 순서가 없어요. 밝은 마음으로 나눔과 배려가 있을 때 행복이 살아 숨 쉬답니다.



내 이름은 이순덕

공진하 글 · 최정인 그림 | 낮은산 | 2011년 | 92쪽 | 관계의 소중함

“넌 아직도 그것도 못하니?”라는 소리를 하루에 몇 번 듣는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늘 욕심을 부리지요. 순덕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많이 느리다고해요. 하지만 순덕이는 때때 들과 함께 놀고 싶고, 같이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순덕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멋진 일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지 몰라요.



너는 어디로 가니

백신 트로티어 글 · 이자벨 아르스노 그림 | 노경실 옮김 | 산하 | 2012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일정한 시기마다 집을 옮겨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 속 안나는 가족이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큰 이동을 하게 되지요, 안나는 자신의 가족이 계절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같고, 산토끼, 일벌, 고양이 같아요. 나무처럼 한 곳에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안나의 바람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키시카와 에쓰코 글 · 오카모토 준 그림 | 고향옥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6년 | 112쪽 | 장애

내 부모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책 속 주인공인 사춘기소녀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소소한 사건들을 재치 있게 풀어가는 동화입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시기에는 아픔이 있지요. 얼마나 현명하게 그 장애물을 잘 풀어가는냐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 열쇠를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다들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노경실 글 · 김윤경 그림 | 주니어북스 | 2013년 | 105쪽 | 다양성

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이 책의 주인공 세종이는 엄마가 파키스탄 사람인 이주배경 가정의 어린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굴색이 좀 검다고 놀림을 받아요.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아요. ‘얼굴색이 다들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세종이 엄마를 통해 조금씩 인정하고 다가오는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아요. 함께 지내야 해요.



도둑맞은 이름

호세 안토니오 타시에스 글 · 그림 | 성초림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3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빨간 사과’와 ‘초록색 배’ 그리고 ‘진짜 얼굴’이라는 재미있는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결말을 통해 학교 폭력을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학교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뒷집 준범이

이혜란 글 · 그림 | 보림 | 2011년 | 38쪽 | 함께 사는 세상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혹시 내가 너무 경계하는 편은 아닌가요?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무 사심 없이 내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함께 놀아야 신나고 즐겁거든요. 이 그림책은 새로 이사 와서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뒷집 아이에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마음을 열어주면서, 서로 마음의 벽이 없이 다 같이 놀아야 진짜로 재미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떠돌이 개 퐁이의 일생

김규림 글 · 최라톤 그림 | 꿈꾸는날개 | 2012년 | 96쪽 | 동물권리

버려진 개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어린 나이에 버려진 유기견 퐁이와 말하지 못하는 부부와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하고 애뜻한 사랑이야기입니다. 개는 우리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요. 개들에게도 권리가 있지요. 떠돌이 개 퐁이의 인생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롤라와 나

키아라 발렌티나 세그레 글 · 파올로 도메니코니 그림 | 길상호 옮김 | 씨드북 | 2015년 | 36쪽 | 장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눈을 잃고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납니다. 이 그림책은 사고로 앞을 못 보는 나약하고 심약한 소녀와 스텔라라는 안내견과의 우정과 서로의 관심 속에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침울한 소녀가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찾게 되지요. 이러한 극복은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해서겠지요.



먹지 마! 곤충젤리

강버리 글 · 한상언 그림 | 한림출판사 | 2012년 | 223쪽 | 자신의 소중함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아무렇게나 생활하지는 않나요? 이 책속의 정구라는 아이는 똥똥해서 놀림 받고, 절제하지 않는 생활들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환타지 동화입니다.



멋지다! 안별 가족

이종은 글·김민수 그림 | 노루궁뎅이 | 2014년 | 60쪽 | 다양성

내 동생이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 동화책의 주인공인 안별의 새엄마는 코끼리가 사는 나라에서 왔어요. 얼굴도 까맣고 우리나라 말도 서투릅니다. 그래서 동생의 얼굴도 다르지요. 숙제로 가족을 그리면서 고민하는 안별, 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까만 동생도 나처럼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가족이란 한 명이라도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별네 가족그림은 모두 활짝 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바바라 피코자, 도라 씨스니 글·티보르 카르파티 그림 | 권양희 옮김 | 봄별 | 2015년 | 80쪽 | 장애인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 책은 사회에서 좀 약한 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장애인 친구들의 자유와 권리도 똑같이 소중한데, 행복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글·윤정주 그림 | 창비 | 2014년 | 55쪽 | 다양성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흠, 키가 너무 커서 버스 타기가 힘들지는 않았나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목이 긴, 주인공 목기린 씨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포용과 개선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신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무지개

김진기 글·김재홍 그림 | 푸른책들 | 2007년 | 32쪽 | 장애인

나는 어리고 내 엄마는 앞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엄마와 무지개를 매개로 교감을 나눕니다. 빨강은 빨개진 아이의 불을, 노랑은 엄마가 좋아하는 민들레꽃을……. 무지개를 통한 사물의 표현을 엄마와 아이의 단순한 색깔의 알림이 아니라 힘든 현실을 밝힘으로 바꾸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무지개 욕심괴물

김규정 글·그림 | 철수와영희 | 2014년 | 60쪽 | 평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핵발전소인 ‘욕심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인 ‘무지개 욕심괴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는 괴물입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다가온 욕심 괴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책은 방사선의 무서운 위력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지개 욕심괴물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 에르보 글·그림 | 김버리 옮김 | 한올림어린이 | 2015년 | 48쪽 | 장애

바람은 어떤 색깔까요? 이 그림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색을 찾아 나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의 소년과 함께 감각으로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람은 무슨 색깔까요? 소년이 만나는 많은 다양한 대답들에서 우리는 바람의 색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의 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람은 무슨 색이죠? 바람의 색깔은 내 마음과 같아요. 지금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보 야쿠프

울프 스타르크 글·사라 룬드베리 그림 | 이유진 옮김 | 한겨레어린이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리면 어떤가요? 야쿠프는 친구들로부터 바보 야쿠프라고 놀림을 당해요. 그래서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늘 고민이었지요. 하지만 삼촌은 바보도 좋은 거라고 해요. 남들을 많이 웃기니까요. 실제로 야쿠프는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친구들을 많이 웃기죠. 사실 야쿠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야쿠프처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남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상처받지 말고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글·김 아마테 그림 | 유 아가다 옮김 | 고래이야기 | 2015년 | 34쪽 | 다양성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그림책은 꿀벌들을 통해 이주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고 있습니다. 꿀벌들은 자기들의 집이 좁아져서 누군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음을 알지요. 그들 때문에 좀 불편하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 질 것에 대한 불안 등으로 그들을 거부하지요. 우리 지구촌은 모두 함께 나누고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해요.



보이지 않는 아이

트루디 루드윅 글 · 패트리스 바톤 그림 | 친미나 옮김 | 책과 콩나무 | 2013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딱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면 어떨까요? 힘이 날거예요. 이 책속 브라이언도 자기를 알아주는 저스틴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친구인 저스틴도 브라이언의 친절에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누군가에게 서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와 서로 그런 배려와 존중의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아요.



블룸카의 일기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 · 그림 | 이지원 옮김 | 사계절 | 2012년 | 72쪽 | 평화

내 마음의 평화는 어떤 건가요? 이 그림책 속 여자아이가 있는 곳은 1940년대의 전쟁 속 고아원입니다. 비록 고아원이지만 코르차이라는 원장의 훌륭한 생각과 철학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았던 곳이지요. 한 여자아이의 시각으로 본 일기형식의 이 그림책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아마도 이러한 배려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피어날 거예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 · 그림 | 사계절 | 2010년 | 48쪽 | 평화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지역은 남과 북이 서로 경계를 지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둔 곳이에요. 사람은 못 들어가도 새들과 온갖 동물들은 마음대로 드나들지요. 그래서 희귀생물과 동물들이 번식하고 있다고 해요. 이 그림책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생기와 인간의 살벌함이 교차하는 묘한 풍경을 철따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비무장지대는 없어야겠어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비밀

허은미 글 · 박현주 그림 | 문학동네 | 2012년 | 40쪽 | 아동성폭력

누구나 비밀은 있지요. 하지만 아픈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런 비밀이 생기면 그 비밀은 없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잘 풀 수 있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 그림책은 아이가 당한 성폭 아픔의 비밀을 다루었어요. 아픔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요? 언제나 당당하게 나의 생각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빨간 볼

안 더 킨더르 글 · 그림 | 정신재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크게 진행되어 난감한 적 없나요?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일이 많지요. 이 책 속의 주인공도 그냥 재미있고 신기해서 친구에게 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게 확대되어서 그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결과를 낳았지요. 이제 그만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어찌죠?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씩 풀어가야 할거예요. 이 책을 읽다보면 좋은 방법이 숨어있을 거예요.



빠순이의 일기

이가을 글 · 권송이 그림 | 한림출판사 | 2012년 | 80쪽 | 양성평등

우리 집에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어떤가요? 아빠가 전업주부이고, 엄마가 잘나가는 회사에 다니나요? 이 책속 주인공 집도 옛 고정관념을 깨고 아빠가 엄마역할을 하면서 주인공과 소소하게 다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메모하나 남겨놓고 훌쩍 집을 나가버리지요. 내가 몰랐던 아빠의 어려웠던 점을 일기장을 통해 알아내고 아빠를 찾아 떠나요.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올까요?



새 할머니

엘리자베스 슈타인켈너 글 · 미하엘 로어 그림 | 이미옥 옮김 | 북비 | 2012년 | 25쪽 | 세대 간의 이해

우리 할머니가 그동안의 많은 기억들을 잊어 버리고 다른 할머니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를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아이처럼 되어서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사실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의 할머니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그림책 속 가족은 조금씩 새 할머니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새터민 이야기

한경아 글 · 신나경 그림 | 거인 | 2013년 | 132쪽 | 북한인권

국경을 넘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쪽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남쪽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 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사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남쪽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차별해야 할까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 · 그림 | 서예경 옮김 | 사계절 | 2015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 선생님이 무서운가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우리들처럼 웃고, 울고, 먹고, 놀기도 하세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선생님께 벌도 받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학교 밖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데 의외로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가오고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몬스터가 아님을 알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코바야시 유타카 글 · 그림 | 길지연 옮김 | 미래M&B | 2003년 | 48쪽 | 평화

꽃 피고 맛있는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새들은 날아다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 어느 날 전쟁으로 대포소리가 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까이 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의 한 평화로웠던 마을이 전쟁으로 없어졌어요. 가족 중 형제도 없어졌어요. 전쟁은 끔찍해요. 이 그림책은 전쟁으로 아름다웠던 마을이 없어져버려서 그때 그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들에게 생각의 열쇠를 안겨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오진희 글 · 김재홍 그림 | 내인생의책 | 2014년 | 60쪽 | 평화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힘이 세야하나요? 돈이 많아야 하나요? 아닐 거예요. 이 그림책 속 먼지는 무조건 힘이 세야한다고 생각해 힘이 세지고 누군가에게 포를 쓰는 대포가 되지요. 하지만 훌륭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난 나아가던 먼지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도대체 훌륭한 건 어떤 걸까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 를 보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의 눈물

최은영 글 · 허구 그림 | 바우솔 | 2012년 | 103쪽 | 평화

억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할머니들. 20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눈이 와도, 비가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하는 할머니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책 속 할머니들은 그런 솔직한 사과를 바라지요. 이런 마음이 평화입니다.



신나게 자유롭게 뺑

황선미 글 · 정진희 그림 | 베틀북 | 2013년 | 136쪽 | 아동인권

신나게 축구하고 싶나요? 신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이 책은 너무나 풍족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학원을 전전하는 한국 아이와 지구 반대편에 같은 또래의 축구공을 바느질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 다 행복할까요? 한 아이는 보호라는 망에서 허덕이고, 한 아이는 노동의 학대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인권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해서 신나게 할 수 있음에서 올 거예요.



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글 · 그림 | 스킨라 | 2016년 | 44쪽 | 동물권리

집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여 집에 데려와 키우고 싶지요. 사실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애완용으로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힘들면 버리기도 하지요. 요즘은 버려진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이 그림책은 동물들에게도 생각과 그들만의 감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리 페이 후양 글 · 그림 | 노영주 옮김 | 국민서관 | 2013년 | 36쪽 | 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 링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악기를 모아요. 동생이 활쫄음으로 만든 오카리나를 선물하고 그 오카리나로부터 아름다운 그녀만의 소리를 들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느껴지는 소리를 동생에게 들려주지요. 지평선으로 두동실 떠가는 빨간 풍선의 소리, 연못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소리, 그녀에게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아킴 달리다

클로드 K. 뒤브와 글 · 그림 | 김희정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13년 | 96쪽 | 평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우리는 무작정 도망 가야할까요? 아킴은 달립니다. 전쟁의 무서움으로부터 도망 가야하니깐요. 누가 일으켰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전쟁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야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포로가 되어야 하고, 보호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이 전쟁이 끝나기는 할까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아킴에게 평화로운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아킴은 달리고 또 달려요...



양들은 지금 파업 중

장 프랑수아 뒤몽 글 · 그림 | 이주희 옮김 | 봄봄 | 2010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늘 해오던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마음은 어떤가요?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이 그림책의 양들은 자신들만 털을 깎아야 하는지에 불만이 생겨 파업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개와 여러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디든 무슨 일어난 한 쪽으로 치우치면 불만이 생기지요, 우리의 삶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가워요.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루스 밴더 지 글 · 로널드 험러 그림 | 여우별 옮김 | 맑은가람 | 2009년 | 32쪽 | 평화

4살 때 전쟁으로 엄마도 잃고, 두 눈까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폭탄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리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죽으면서 엄마가 말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였습니다. 9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엄마의 목소리는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요, 바로 진실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얼음 땡!

강풀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 2014년 | 46쪽 | 관계의 소중함

놀이에서 깽두기를 해본 적 있나요? 깽두기는 왕따가 아니에요, 놀이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짝이 맞지 않을 때 모두 함께 놀기 위해 만들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깽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깽두기는 소중하답니다, 놀이를 무난하게 이끌 기도 하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지요, 차별없이 모두 어울리는 놀이를 해요, 우리.



엄마랑 둘이서

이옥수 글 · 김아랑 그림 | 시공주니어 | 2011년 | 96쪽 | 가족

“우리 가족은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이야, 난 엄마랑 둘이 사는데 정말 불만 없애! 엄마랑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많이 사랑하며 살 거야!”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대가족, 핵가족... 누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각각 다르지요,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누구와 사느냐보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해나는 아빠가 없어서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엄마에게

서진선 글·그림 | 보림 | 2014년 | 42쪽 | 평화

6.25전쟁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이 터졌답니다. 전쟁은 가족을 다 헤어지게 만들지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엄마와 헤어져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엄마가 보낸 봉숭아 씨를 받아 심어서 꽃을 보면서 엄마가 자주 부르던 봉숭아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리움이지요. 아픔이지요. 전쟁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오늘은 내가 스타!

패트리샤 폴라코 글·그림 | 이현진 옮김 | 나는별 | 2015년 | 48쪽 | 자신의 소중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발표 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보통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떨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지요. 이 그림책은 작가가 어릴 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꼭 빠질 수 있다면 '오늘은 내가 스타!' 가 될 수 있지요.



완벽한 세상

호이 베로카이 글·엘비오 아리스멘디 그림 | 홍성림 옮김 | 지호어린이 | 2012년 | 32쪽 | 인권의 이해

거리의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부모의 보호아래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 그림책 속 아이는 거리의 아이예요. 차를 닦아주면서 번 돈으로 게임을 해요. 그 게임 속에서는 따뜻한 가정도 있고,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있어요. 행복함을 누리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거리의 아이는 완전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왕가리 마타이

프랑크 프레보 글·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 정지현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 2012년 | 45쪽 | 인권-인물

누군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책 속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 사람입니다. 그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온 국토가 벌거숭이로 변한 사실을 거부했지요. 나무를 심지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말하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지요. 나무를 심고 또 심고, 심어서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케냐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 주는 일을 했지요.



왜 내 동생이죠?

레베카 오로스코 글 · 로사나 파리아 그림 | 유 아가다 옮김 | 고레이야기 | 2015년 | 32쪽 | 장애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면 나는 어떨까요? 왜 하필 내 동생이, 다른 친구들 동생은 멀쩡한데 내 동생은 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하지만 동생과 잘 놀아주기도 하고 동생과의 일들을 일기로 5년 동안 기록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동생은 잘 웃어 주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장애에서 오는 편견은 없어 진답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조지혜 글 · 천필연 그림 | 참돌어린이 | 2012년 | 152쪽 | 차별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지는 않나요? 기령 얼굴이 검은 사람은 왠지 무서워하지는 않나요? 단지 조금 검은 뿐이며, 약간 다름 뿐인데 우리는 두꺼운 벽을 두르지는 않나요? 차별은 좋지 않아요. 비교도 좋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평화가 함께 하지요. 내가 먼저 베풀면 조용히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울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는 손으로 말해요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글 · 베레나 발하우스 그림 | 김경연 옮김 | 주니어김영사 | 2006년 | 28쪽 | 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마술사 같았어요. 왜냐면 문을 열면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거든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 이런 건가 봐요. 바다가 찰썩거리는 소리는 어떤 걸까? 나무가 팔랑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어떤 걸까? 친구가 불러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을 아나요? 하지만 책 속 아이에게 손으로 말하는 친구가 생겨요.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요

황동진 글 · 그림 | 낮은산 | 2012년 | 44쪽 | 교육받을 권리

우리는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 갈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지구의 다른 곳곳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그림책 속 케냐, 캄보디아, 콜롬비아, 네팔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아주 힘들게 가야해요. 밀림을 지나야하기도 하고, 높은 산과 산을 뺄줄로 건너 가야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집 안 일을 해야 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서지원 글 · 이미정 그림 | 소담주니어 | 2014년 | 56쪽 | 인권의 이해

우리는 내가 누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책은 교육을 받을 권리, 마음껏 놀 권리, 내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전쟁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꿈 꿀 권리, 굶주림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

발레리아 파렐라 등 글 · 마라 체리 등 그림 | 유지연 옮김 | 청솔 | 2012년 | 152쪽 | 인권의 이해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나요?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에 채택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평등의 권리, 건강할 권리, 배울 수 있는 권리, 마음껏 놀 권리, 나의 의견을 낼 권리, 참여할 권리, 약함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잘 먹을 권리 등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잘 알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자 동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집이 더 비싸거든

강효미 글 · 마정원 그림 | 파란정원 | 2010년 | 96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요즘 아이들은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는지에 따라 친구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책 속 주인공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작지만, 아파트도 아니지만 꽃밭이 있고, 강아지 집도 있고, 햇볕 드는 곳에 빨래도 널 수 있고.... 나는 이런 집이 하늘도 보이지 않는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위를 봐요!

정진호 글 · 그림 | 은나팔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매일 눈길을 주던 곳에서 벗어나 오늘은 다른 곳을,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바라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몸이 불편하여 집 아파트에서 늘 아래만 내려다보던 아이에게 어느 날 위를 쳐다보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도 변화를 느껴요. 좀 다르게 바라보세요. 어제와 다르게 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 할거예요.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채인선 글 · 김우선 그림 | 미세먼기 | 2015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만 잘 살면 될까요?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될 거예요.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아우러져야하지요. 이웃과 지켜야 할 의무, 각자 누려야 할 권리 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먼저 행할 때 우리 주변은 조금씩 변화할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지요. 내가 평화로우면 이웃도 평화로울 거예요.



잘 자요, 대장

발아마드 아크바푸르 글 · 모테자 자헤디 그림 | 마음물꼬 옮김 | 고래이야기 | 2011년 | 22쪽 | 평화

전쟁은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들의 이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전쟁으로 이 그림책속 소년은 엄마를 잃고, 다리 한 쪽을 잃게 됩니다. 소년은 상상해요. 엄마를 죽인 군인에게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을. 그러나 그 군인도 한 쪽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힘있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자들이 피해를 보지요. 전쟁은 어디에도 없어야 해요.



적

다비드 칼리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 안수연 옮김 | 문화동네 | 2008년 | 64쪽 | 평화

나의 '적'은 누구인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고 또 싸우지요. 그러다 모든 것이 파괴되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적'이 무엇인지 '적'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철학적 그림책입니다. 두 명의 병사가 서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초소에서 겨루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 알게 되지요. 적으로 알았던 상대방도 나와 같이 감정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자 배우는 아이

고정욱 글 · 엄유진 그림 | EF북스 | 2013년 | 94쪽 | 장애

갑자기 나에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이 책 주인공처럼 눈이 안보이게 되는 과정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지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장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야겠어요. 이 책 속 주인공처럼.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예영 글 · 황유리 그림 | 뜨인돌어린이 | 2010년 | 134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책은 세계 곳곳의 어려움, 즉 질병, 굶주림, 노동, 학대 등으로 힘들어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여러 봉사단체나 도움의 방법 등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참 많아요. 이 책과 함께 멋진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글 · 정후이허 그림 | 나진희 옮김 | 산하 | 2011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까요? 당연한 사실에 불과하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 책속 아이는 거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죽었고, 어머니마저 죽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생쥐 한 마리 그 생쥐도 소독 때문에 없어지지요. 아이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그러다 죽기 전에 거리의 사람들의 보호소에 오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요. 처음으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이 소년은 행복하게 죽어갑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이로 부이트라고 글 · 라파엘 요크탱 그림 | 김정하 옮김 | 노란상상 | 2013년 | 32쪽 | 평화

세상은 좀 무서워요.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참 좋겠지요. 이 그림책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기다리는 동생을 위해 빨리 가야해요. 그때 수호천사처럼 사자가 나타납니다. 든든한 친구이지요. 이제 소녀는 무섭지 않아요. 힘이 나요. 소녀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희망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귀 토끼

다원시 글 · 탕탕 그림 | 심윤섭 옮김 | 고래이야기 | 2006년 | 42쪽 | 다양성

나는 나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귀가 짧고 몽땅한 토끼는 남들처럼 멋진 귀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지요. 마지막으로 뺑을 구워 멋진 귀를 만들어보지요. 잘 해결될까요? 이 그림책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장점을 발굴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카펫 소년의 선물

페이 다이츠 세어 글 · 린 모린 그림 | 김지연 옮김 | 꿈터 | 2012년 | 44쪽 | 아동인권

어딘가에 갇혀서 온 종일 일만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학교도 못가지요, 파키스탄의 한 소년은 집이 가난하여 팔려서 온 종일 일만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인권운동을 하게 되지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노동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지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동은 강제로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요, 이 그림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콧수염 형제

알렉스 쿠소 글 · 샤를 뒤테르트 그림 | 백선희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4쪽 | 인권의 이해

누군가가 힘으로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힘으로 싸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극이나 코미디로 반대운동을 하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아시아의 어떤 독재국가에 실제 있었던 코미디의 역할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무조건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털실 한 뭉치

홍종의 글 · 박보미 그림 | 국민서관 | 2012년 | 42쪽 | 평화

내 발 앞엔 털실 한 뭉치가 푹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친구가 이사를 가버리고 이사 집에서 떨어진 털실 한 뭉치, 가버린 친구가 알뜰기도 하고 서운하기 그지없는 남은 아이는 그 실 뭉치를 어디론가 던져요 할것, 그 실 뭉치는 멀리 멀리 가요, 북한까지 가요, 외롭고 힘든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 아이들에게 이 실 뭉치는 따뜻함을 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들려줄게

앤디 앤더슨 홉퍼린 글 · 그림 | 최성현 옮김 | 불광출판사 | 2013년 | 42쪽 | 평화

나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평화는 어디에나 있지요, 놀이터에도, 집에도, 학교에도, 어디에도 평화는 있지요, 단지 우리는 그 평화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기도 해요, 평화는 요, 바로 나 옆에 나와 함께 있어요, 친찬히 이 그림책을 보아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요, 편안해져요~ 이것이 바로 평화랍니다.



행복한 우산마을

김동현 외 지음 | 바람의아이들 | 2014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시설에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동화책이에요. 우산마을에 우산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나고 즐거운 일상들을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평소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음을 우산마을의 한 강아지를 통해 알게 되고 서로 나누고 보듬고 하여 행복한 마을을 꾸며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면 행복하지요. 무엇보다도 모두 힘을 합쳐 동화책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나게 해요.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빈 글 · 카디르 벨슨 그림 | 김향이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08년 | 48쪽 | 인권의 이해

자유를 찾아 작은 상자 안에서 27시간을 숨죽이며 견딜 수 있을까요? 이 그림책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간 노예생활을 한 실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흑,백의 차별이 심하진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지요.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야했던 시절 그들에게 인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려야 됨을 알아야 겠지요.



형 나를 지켜 줘

박현숙 글 · 김미현 그림 | 북스토틀라이 | 2013년 | 128쪽 | 다양성

내 형이나 누나, 언니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지요. 이 책 속 주인공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와 형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힘들어해요. 단지 좀 다를 뿐인데 잘하는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놀리고 멀리하는 요즘 아이들... 이 책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힘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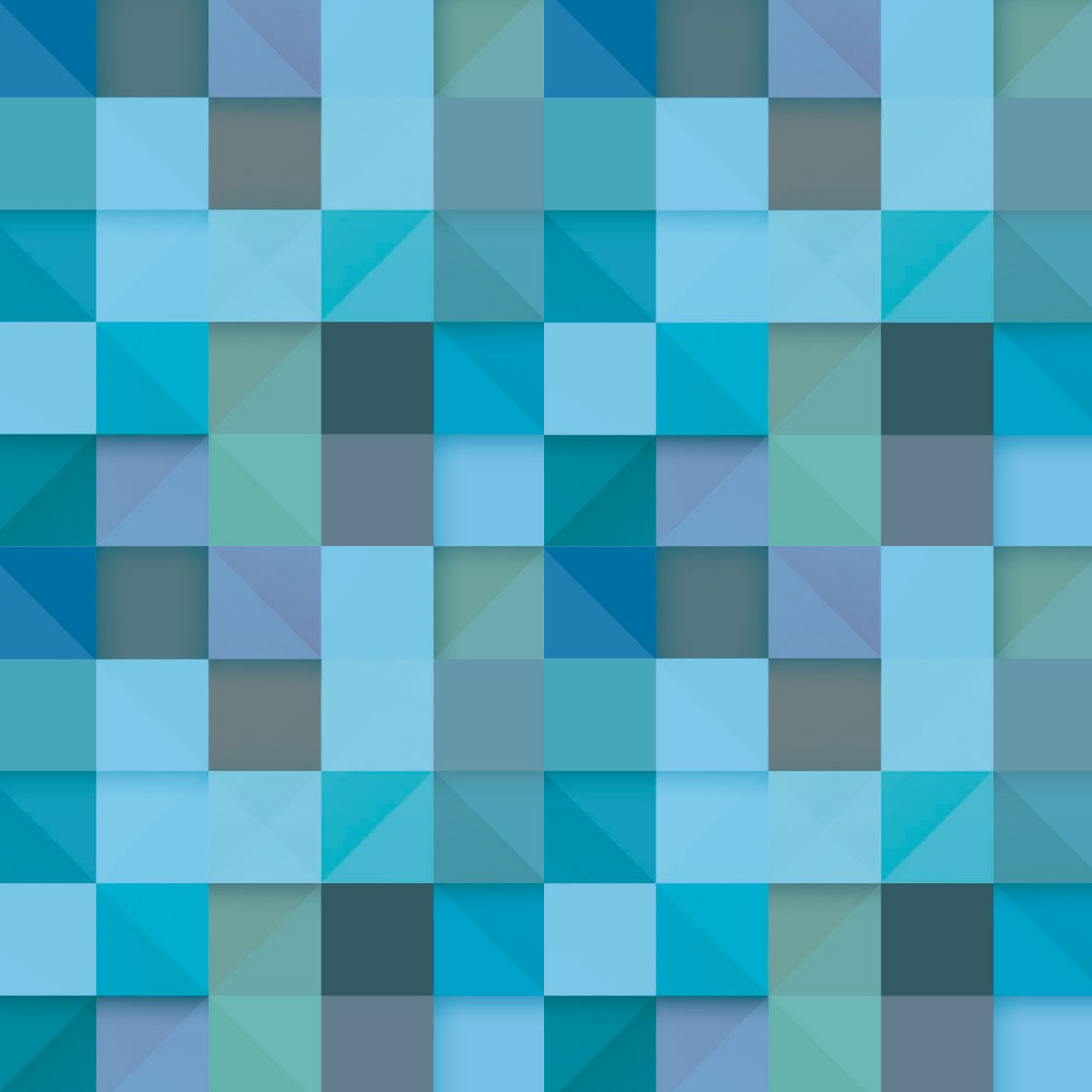


혼자 남은 착한 왕

이범재 글 · 그림 | 계수나무 | 2014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는 착한가요? 안착한가요? 착하다는 건 뭘까요? 착한나라에 착한 왕이 살았지요. 착한 왕은 자기 생각대로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착한 왕 혼자 남지요. 잘못 된 생각을 기준으로 뾰가를 실천하는 건 위험하지요. 생각의 차이는 서로 다름이에요. 서로 다름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면 불행한 일이 생겨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겠어요.







별별 학교 지구촌 친구들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가 있다면 좋겠지요? 우리 지역은 산이 높고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할 수 있는 ‘산자연학교’를 만들었지요. 우리 동네는 흥수가 많이 나오. 그래서 ‘보트학교’를 만들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구촌에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해서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놀라운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트학교, 버스학교, 거리의 교실 없는 학교 등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나누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주변 어느 곳이든 아름다운 학교가 될 거예요.



수정 호즈 글 | 강수정 옮김 | 다림 |
2012년 | 88쪽 | 아동인권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의사, 박사, 유엔사무총장, 과학자 등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누구도 자신이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일곱 가족의 이야기 안에 엄마, 아빠는 시간강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간병인, 계약직 방송작가, 계약직 공무원, 프리션 언 번역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이야기도 무겁고, 비참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지금의 사회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정말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장래의 꿈이 '무엇이 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소소한 이야기들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글·그림 | 사계절 | 2012년 | 162쪽 | 노동권



춘희는 아기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언제 불러도 짝하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림책이 있어요.

어느 초라한 집 마당에는 하얀 기저귀 빨래가 널려있습니다. 할머니의 아기 춘희는 마흔 세 살의 아기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해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춘희, 그 아이를 위해 엄마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이 그림책의 그림 작가는 전쟁으로 입은 아픔을 기저귀 천에 솟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빨간 꽃과 주인공 아이, 그 아이를 통해 보여 지는 할머니의 한과 아련한 고국에 대한 향수가 그림 속에 아프게 묻어 있습니다.

한 때의 전쟁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서로 조금씩 나누고, 보듬는 마음에서 들꽃이 받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 오지요.



번기자 글 · 정승각 그림 | 박종진 옮김 |
사계절 | 2016년 | 40쪽 | 평화



강냉이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사계절 | 2015년 | 36쪽 | 평화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책은 집 모퉁이 토담 아래에서 한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강냉이(옥수수)'를 심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강냉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기다리는 아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달라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선 아이는 전쟁의 아픔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토담 아래 심어 놓은 강냉이가 걱정입니다. '지금쯤 수염 나고 알이 뻗 켜데...'



개성빵

문영숙 글 · 이상운 그림 | 아이앤북 | 2013년 | 176쪽 | 북한인권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기태와 기옥이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북한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낮은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태와 기옥이는 다시 힘을 냅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희망하며...



건수 동생, 강건미

박서진 글 | 바람의아이들 | 2016년 | 160쪽 |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건수와 남다른 영재성을 지닌 건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건미가 장애를 가진 건수를 자신의 오빠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주 작은 배려가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검은 후드티 소년

이병승 글 · 이담 그림 | 북멘토 | 2013년 | 208쪽 | 차별

인종 차별로 인해 한 흑인 소년이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책은 흑인 소년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차별과 편견에 사랑과 정의로 맞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차별과 편견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이가 묻습니다. "마틴형,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올까?" 정의로운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 하는 듯합니다.



경극이 사라진 날

야오홍 글 · 그림 | 전수정 옮김 | 사계절 | 2011년 | 32쪽 | 평화

공연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어느 날 난생처음으로 춤을 걸들인 동극을 보면서 경극 배우의 몸 사위에 웃고, 울고 가슴 설렘을 맞본 소녀, 그리고 다음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는 난징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뒤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 그림책은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의 잔인함과 무서움을 알려 줍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글 · 한수진 그림 | 살림어린이 | 2013년 | 208쪽 | 북한인권

어린이는 보호 받아야 하고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는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인공 강일이를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북한과 탈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꿈꾸는 자유와 희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군화가 간다

와카야마 시즈코 글 · 그림 | 황진희 옮김 | 사계절 | 2014년 | 44쪽 | 평화

“척,척,척”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군화가 들려주는 전쟁이야기입니다. 군화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국가도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군화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천진난만한 소녀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살아간다. 나의 미래에는 전쟁 따위는 필요 없다.”



그 꿈들

박기범 글 · 김중숙 그림 | 낮은산 | 2014년 | 128쪽 | 평화

이 책은 이라크 전쟁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직접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 민간인들과 함께 전쟁을 겪으면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과 사연을 담아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그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많은 군인들도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많은 꿈은 전쟁으로 인해 스러져 갔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레아 필리기 글 · 이인아 그림 | 강효원 옮김 | 어린이작가정신 | 2015년 | 188쪽 | 아동인권

이 책의 주인공 제이크는 열 살인 나이에 '죄수 번호 88' 로 아이다호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만, 제이크는 교도소 생활에서 뜻밖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이전 생활이 암담하기도 했지만, 교도소 안에서 어린 수감자에 대한 연민으로 제이크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곳! 교도소 사람들도 아이를 돌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보호 받아야 합니다.



김금이 우리 누나

장정선 글 · 김은주 그림 | 우리교육 | 2012년 | 132쪽 | 평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하던 시기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행하는 폭력과 차별,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픈 역사 안에 비극과 슬픔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동무가 있고, 놀이와 있고,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꽃할머니

권운덕 글 · 그림 | 사계절 | 2010년 | 48쪽 | 평화

“난 꽃이 좋아. 사람들이 꽃 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평화는 함께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세상에서 오지요. 이 그림책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알려줍니다.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한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누구나 소중하지요.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곽영미 글 · 김윤정 그림 | 스킵 | 2013년 | 180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지닌 재능과 관심으로 얼마든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시작은 작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지 알려주며 또한 우리들도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베르나르 상바즈 글 · 바루 그림 | 양진희 옮김 | 초록개구리 | 2012년 | 36쪽 | 평화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은 미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 혐오주의 속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낫시르의 친구는 낫시르의 아버지가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낫시르가 겪은 아픔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전쟁과 테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슈갈이다

한영미 글 · 남궁선하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8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을 소재로 하는 동화책입니다. 때로는 신체적 폭력보다 말로 가해지는 폭력 이 더 아프고, 상처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은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다가 '방패말'로 슬기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어린이 노동자 : 세계 2억 노동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글 | 황미숙 옮김 | 현암사 | 2012년 | 157쪽 | 아동인권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교육, 발달, 보호 등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노동으로 인해 놓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세계 아동 노동의 실태와 해결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면 어린이 노동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세계의 아이들이 아이답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 병사 : 총을 들고 죽어 가는 분쟁 지역의 아이들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글 | 조미량 옮김 | 현암사 | 2012년 | 157쪽 | 아동인권

전 세계 85개국 30만 명의 아이들이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병사가 되거나 가난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입대하여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거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분쟁 지역의 아이들, 어린이 병사들의 실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희생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태양

우메다 순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그림 | 이가용 옮김 | 길벗어린이 | 2014년 | 204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은 한 소년이 어촌 유학을 통해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며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 속 가야 형이 말한 ‘굵은 밧줄’(배와 배를 잇는 밧줄처럼 배가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는 밧줄)처럼 ‘우리’라는 밧줄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태양처럼 밝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야, 늙은 5학년

조정숙 글·정지혜 그림 | 비룡소 | 2009년 | 231쪽 | 북한인권

탈북 소년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정착해 나아가는지, 그가 희망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열다섯 살이지만 130cm 키에 5학년인 명우는 한국에 온 후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지만 항상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듯합니다. 명우의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명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사랑일 것입니다. 명우는 주변 친구들과로 인해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달’ 글·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1년 | 151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에게 ‘권리’가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인권 이야기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만화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나갑니다. 어린이들이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나 자신의 권리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평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엘리자베스 버디, 필리스 카우프만 굿스타인 글·신민재 그림 | 전지숙 옮김 | 길벗스쿨 | 2014년 | 128쪽 | 관계의 소중함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나 괴롭힘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주변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라고. 그리고 책 표지를 통해 ‘친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역할극과 OX 퀴즈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무 도장

권윤덕 글 · 그림 | 평화블룸은책 | 2016년 | 60쪽 | 평화

제주4·3사건 당시 가족이 모두 학살당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멋진 여행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시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쁜 초콜릿

샬리 그린들리 글 · 문신기 그림 | 정미영 옮김 | 봄나무 | 2012년 | 224쪽 | 아동인권

온종일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의 열매를 따고, 껍질을 벗기느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아동인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고단한 삶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은 걸까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주희 글 · 신민재 그림 | 길벗스쿨 | 2008년 | 116쪽 | 인권의 이해

'부당한 현실과 차별에 맞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던 열두 가지 용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열두 가지 사건 속 이야기(여성, 어린이, 흑인들이 받은 차별)를 통해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UN국제 평화기구가 정한 기념일(세계 평화의 날, 세계 장애인의 날 등)에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소중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미셸 피크말 글 · 자크 아잠 그림 | 양진희 옮김 | 톡 | 2015년 | 68쪽 | 다양성

이 책에는 왼손잡이에 대해 과학적, 역사적, 사회적... 여러 접근으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며 왼손잡이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와 '다름'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에서 차별 받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 도 '그게 어때서?' 라고 말 할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아간 작은 새

이수배 글 · 김형근 그림 | 한림출판사 | 2014년 | 168쪽 | 장예

주인공 도현이는 회귀 근육병에 걸려 휠체어에 앉아 지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나마 새가 되어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도현이는 끝까지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살아가는 동안 저한테 가장 소중한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늙은 사진 속 이야기

천룡 글 · 그림 | 전수정 옮김 | 세계절 | 2015년 | 48쪽 | 평화

그림책 속 두 청년의 우정 이야기 뒤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청년을 갈라놓은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그들에게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늙은 사진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국가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우정을 갈라놓고 아픔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자비한 폭력과 참혹함이 있습니다.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낮짱이 간다

김송이 글 · 홍영우 그림 | 보리 | 2006년 | 135쪽 | 차별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선인 여자 아이가 일본의 남자 아이들을 혼 내주는 이야기가 펼쳐 칩니다. 조선 사람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수모와 멸시, 차별 속에서도 낮짱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이런 낮짱의 씩씩함 뒤에는 낮짱이 존경하는 아버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낮짱의 아버지는 ‘정의롭고, 책임질 줄 알고, 남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이 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말랄라

허운주 글 · 오세영 그림 | 삼성당 | 2014년 | 136쪽 | 평화

말랄라는 11살의 어린 나이에도 탈레반 정권의 탄압 속에서 여성의 교육과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 여성인권 운동가입니다. 목숨에 위협을 느껴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활동이지만 끈기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랄라는 말합니다. “저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6,600만 명의 아이들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혼자자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 씨름 왕자

송언 글 · 유승하 그림 | 웅진주니어 | 2015년 | 192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친구관계입니다. 특히, 요즘은 왕따와 괴롭힘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계 맺기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강동훈에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고, 결국 문제를 풀어 나가는 열쇠는 반 친구들의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북한 아이들 이야기

이은서 글 · 강춘혁 그림 | 국민출판 | 2011년 | 160쪽 | 북한인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나 가장 먼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 책은 북한 어린이의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왜 탈북을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배고픈 고민은 없어지지 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 편견으로 마음이 굻주리게 됩니다. 탈북자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들어 보렴

클로리아 세실리아 디아즈 글 · 조승연 그림 | 남진희 옮김 | 우리교육 | 2008년 | 140쪽 | 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와 이유 없이 장애를 두려워하는 아줌마가 서서히 서로를 받아들이며 친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소리는 듣지 못해도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오라시오를 통해 마음이 꼭 닫혀 있던 베아트리스 아주머니와 베아트리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주변인들의 마음까지 활짝 열어줍니다. 정작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류은숙 글 · 원혜진 그림 | 양철북 | 2015년 | 112쪽 | 다양성

이 책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숲과 같다고 합니다. 서로 버틸 힘을 마련해주고 곤란이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을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하나의 소중한 '나' 가 모여 '우리' 가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달라도 괜찮아

E. L. 코너스버그 글 · 김종민 그림 | 김영선 옮김 | 열린어린이 | 2008년 | 112쪽 | 다양성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네 편의 단편 이야기를 진진하면서도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네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내용과 소재로 이루어지며, 네 명의 주인공들이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달라도 괜찮습니다.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 뜨인돌어린이 | 2015년 | 152쪽 | 동물권리

동물들도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의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긴 동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고통당하는 실험실 동물들, 모피를 만들기 위해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동물들, 작은 우리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물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물들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대장은 나야

카트 브랑켄 글 · 마르틴 반 더 린덴 그림 | 강혜경 옮김 | 시공주니어 | 2009년 | 124쪽 | 장애

애완견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바라보는 매우 독특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강아지 세피는 항상 주인 옆에 있는 안내견 알렉스에 대한 질투와 잘못된 편견으로 알렉스를 모함합니다. 그런 세피가 알렉스를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편견과 이기심 그리고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돼지 이야기

유리 글 · 그림 | 이야기꽃 | 2013년 | 40쪽 | 동물권리

2011년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구제역과 그로인해 살처분된 돼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은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구제역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장식 축산 방식 등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편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모르는 척 덮고 지나쳐야 할까요?



뒷간 지키는 아이

김해우 글 · 이수진 그림 | 교학사 | 2014년 | 168쪽 | 차별

최진사는 밤에 뒷간에 갈 일이 생기면 솔개를 앞장세워 등불을 밝히고 뒷간 앞을 지키게 합니다. 최진사의 설사병 때문에 솔개는 밤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솔개는 노비의 신분으로 고단한 일장과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솔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평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는 까만 돌

김혜연 글 · 허구 그림 | 비룡소 | 2012년 | 188쪽 | 관계의 소중함

왕따를 당해 외롭게 지내던 지호는 어느 날 '말하는 까만 돌' 을 만나게 됩니다. 까만 돌은 지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지호의 마음에 공감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지호의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까만 돌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까만 돌을 소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두 까만 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까만 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우메다 순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 · 그림 | 송영숙 옮김 | 길벗어린이 | 1998년 | 220쪽 | 관계의 소중함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모르는 척 하는 방관자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도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으로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간직한 등불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김리라 글 · 김유대 그림 | 웅진주니어 | 2011년 | 156쪽 | 다양성

관우의 엄마는 한국사람, 아빠는 태국 사람입니다. 관우의 태국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우를 통해 이주배경 가정의 이야기를 따뜻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방과 후 운동장 교실

이명량 글 · 유재인 그림 | 스폰북 | 2012년 | 120쪽 | 관계의 소중함

성우는 텅 빈 운동장에서 해가 지도록 혼자 노는 아이입니다. 성우를 괴롭히는 아이들 속에서 현상은 어느새 성우와 친구가 됩니다. 왕따 친구를 대하는 현상의 심리 변화를 지켜보면 '왕따'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우에게 그랬듯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 대해 잘 모른 채 잘못된 편견이나 균형심리와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설 글 · 김호민 그림 | 봄나무 | 2011년 | 163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일터를 잃은 탄광 노동자, 철거촌의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

아베 나즈마루 글 · 정지혜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창비 | 2007년 | 324쪽 | 관계의 소중함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전학생이 옵니다. 소심한 켄지, 학교짱인 아끼라와 강단 있는 전학생 가쓰미...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들려주는 청소년기의 성장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합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은 편견과 이기심이 아닐까요?



봄이 오면 가계

기시모토 신이치 글 · 야마나카 후유지 그림 | 강방화 옮김 | 한림출판사 | 176쪽 | 장애

지적 장애아 유타가 일반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 다른 상대방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양함 속에서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이은서 글 · 강춘혁 그림 | 국민출판 | 2012년 | 160쪽 | 북한인권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책은 북한 어린이의 일기 형식으로 북한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북한의 입학식, 소풍, 간식, 좋아하는 연예인 등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낯설지만 재미있게 느껴지는 북한말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옛 성

차이까오 글 · 아오쯔 그림 | 전수정 옮김 | 사계절 | 2014년 | 30쪽 | 평화

옛 성과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에는 평화로운 일상과 그 일상이 안겨주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길로 당시 3천년의 역사가 담긴 도시와 성이 불탔습니다. 그 불길은 5일 동안 계속되었고 3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의 시선을 통해 그 참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빼앗아가고 아픔만을 남겨 놓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빨래 바구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노경실 글 · 이유나 그림 | 답푸스 | 2014년 | 96쪽 | 아동인권

아홉 살 소년 알루, 알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알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빨래터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계, 노동, 가난... 아홉 살 소년을 떠올리는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루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빨래를 차곡차곡 담을 때마다 이루고 싶은 꿈들도 함께 담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신현영 글 · 황수민 그림 | 한술수북 | 2009년 | 112쪽 | 인권의 이해

인권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일까요? 여기에 3학년 1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학년 1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인권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이공에서 엘라배마까지

탕하 라이 글 · 훔날린 그림 | 김난령 옮김 | 한림출판사 | 2013년 | 288쪽 | 평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베트남을 떠나 엘라배마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벗어나 엘라배마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에 일상이 힘겹습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엘라배마보다 전쟁 중인 사이공에 살고 싶을 때가 있다' 라는 말을 통해 어려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쿠라

다바타 세이이치 글 · 그림 | 박종진 옮김 | 사계절 | 2014년 | 48쪽 | 평화

그림책 속 주인공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해에 태어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속에서도 일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일상의 평화를 누립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난 후에야 전쟁의 잔혹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수는 없는 건가요?



살아 있는 모든 것들

신시아 라일런트 글 | 부희령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5년 | 116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에 담긴 12편의 짧은 이야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고 아픔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느낄지라도 우리는 가족, 친구, 동물, 자연으로 둘러싸여 서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아렌트 판 담 글 · 알렉스 데 볼프 그림 | 유동익 옮김 | 별숲 | 2014년 | 224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생존과 발달, 교육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0가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0개 조항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어린이 인권 이야기를 만나 보아요.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글 · 권송이 그림 | 사계절 | 2016년 | 136쪽 | 함께 사는 세상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가난한 이들은 계속 존재하며 오히려 더 가난해 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 '빈곤'과 '빈곤의 해결책'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의 관점, 오랜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빈곤 문제는 멀고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권

은우근, 조셉 헤리스 글 | 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 | 내인생의책 | 2012년 | 136쪽 | 인권의 이해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모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오승현 글 · 소복이 그림 | 도도북 | 2015년 | 104쪽 | 함께 사는 세상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틀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에 담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올바른 표현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햇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요.



수진이와 큰개불알꽃

송아주 글 · 김주경 그림 | 도토리숲 | 2015년 | 72쪽 | 다양성

이 책은 이주배경 가족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배경 아이인 수진이 곁에는 짓궂게 장난치는 남자 아이도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을 귀화식물인 큰개불알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꽃들은 다른 꽃이 어디서 왔는지 따지지 않아요.'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조르지아 베츨리 글 · 마시밀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 이승수 옮김 | 머스트비 | 2016년 | 64쪽 | 다양성

여덟 살 클로에는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클로에를 바라봅니다. ‘스파이더맨 가방은 남자들이 메는 거야.’ 라는 시선으로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만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 저편

고하마 유리 글 · 김무현 그림 | 김버들 옮김 | 한림출판사 | 2012년 | 200쪽 | 관계의 소중함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주인공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꿈, 유령, 환상 등 설명하기 힘든 미지의 세계,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입니다.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주세요!

노정실 글 · 문보경 그림 | 담푸스 | 2015년 | 88쪽 | 평화

바질은 앞마당에 꽃과 작은 나무를 기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께 화분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천사’ 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시작되고 바질의 꽃밭은 사라지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은 삶을 터전을 잃고 이웃나라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플 전쟁

이규희 글 · 한수진 그림 | 별숲 | 2013년 | 176쪽 | 관계의 소중함

초등학생이 인터넷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연예인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곤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비겁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기본적인 온라인 에티켓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약속

니콜라 데이비스 글 · 로라 칼린 그림 | 서애경 옮김 | 세계절 | 2015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는 황폐한 도시에서 어느 소녀가 노부인의 가방을 훔치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작은 도토리 하나를 마주 하는 순간 심장에 일어난 작은 변화와 함께 '꿈꿔 본적 없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도 미래도 없던 소녀는 황무지 같은 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심장에 변화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우리 반에 공룡이 전학 왔다

서지원 글 · 설은영 그림 | 길벗스쿨 | 2008년 | 160쪽 | 차별

어느 날 미루네 학교에 공룡인 토토가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속 공룡은 우리 주변에 차별과 편견으로 소외 되고 있는 가난한 이들, 이주배경 가족, 장애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공룡과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우주고양이가 도착했다

이기규 글 · 오윤화 그림 | 길벗스쿨 | 2010년 | 152쪽 | 인권의 이해

서기 2800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가정관리 컴퓨터와 외롭게 지내고 있는 로다에게 아버지는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인형이 아니라 우주 고양이 보라를 보냅니다. 우주 고양이 보라가 나타나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의 문제를 알려주며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다

김이경 글 · 조승연 그림 | 길벗스쿨 | 2012년 | 160쪽 | 인권의 이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눈길을 둘 겨를도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책에는 어린이 노동, 인종차별, 소년 병사 등 어린이 인권 문제를 위해 힘쓴 '세계 어린이상' 수상자들의 인권 활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어린이가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이해진, 김영호 글 | 파라주니어 | 2012년 | 151쪽 | 양성평등

우리 사회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사회 안에서 느끼게 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벽은 높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양성 불평등 의식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틀을 깨고, 서로 '다름'을 존중과 배려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전지영, 이해진 글 · 이운 그림 | 파라주니어 | 2015년 | 144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친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은 지식과 정보로 접근하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해 있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고은정 글 · 기쁜우리복지관 엮음 | 주니어김영사 | 2011년 | 248쪽 | 장애

이 책은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주관해 온 창작문화콘텐츠 공모대상 수상작 모음집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예비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11편의 단편 만화를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어려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장애가 아닐까요?



역사 속 인권 이야기

정용주 글 · 정현희 그림 | 리젼 | 2015년 | 116쪽 | 인권의 이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 그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나의 권리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뒤따를 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해

요시모토 유키오 글 · 김환영 그림 | 김미혜 · 황시백 옮김 | 보리 | 1995년 | 196쪽 | 장애

요징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아홉 살에 일본에서 살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요징은 따돌림과 폭력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힘겹지만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줍니다. 요징은 말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좋아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편견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요징을 만나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김중미 글 · 유동훈 그림 | 별천지 | 2010년 | 125쪽 | 함께 사는 세상

진도에서 인천의 가난한 마을로 이사 온 상운이네 4남매의 일기를 통해 그들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인천으로 이사 온 후, 살림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와 용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김현식 외 글 · 이광진 외 그림 | 열다 | 2013년 | 184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네 명의 저자가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인권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통한 인권이야기, 역사 속에서 인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사례, 세계인권선언,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다이에나 큰글 · 프란시스코 델가도 그림 | 마음물꼬 옮김 | 그래픽이야기 | 2014년 | 32쪽 | 노동권

주인공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시작합니다. 카를리토스는 엄마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팻말을 만들어 시위 현장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글 ·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2년 | 135쪽 | 인권의 이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설명을 넘어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로 참여와 민주주의, 환경, 사회복지, 전쟁과 평화, 평등,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관심과 연대를 통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이끌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다니엘 스테판스키 글 · 헤이즐 미첼 그림 | 전광철 옮김 | 고래이야기 | 2013년 | 48쪽 | 장애

이 책의 저자는 자폐증이 있는 열네 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과 친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기 위한 마음에서 라고 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우리는 모두는 서로 다르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서지원 글 · 윤세정 그림 | 소담주니어 | 2014년 | 128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다섯 어린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구걸하며 살아가는 세네갈의 발다, 마녀 사냥을 당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지안,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소피,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인 수단의 아북, 청각장애인이인 대한민국의 대한이, 다섯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세상은 암담합니다.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 논쟁

이기규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5년 | 216쪽 | 인권의 이해

각 주제별 찬반토론을 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사생활침해, 사형제도,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 등의 인권문제와 함께 밀양송전탑,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의 사회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정리가 아닌 실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른 헬렌켈러

권태선 글 · 원혜영 그림 | 창비 | 2010년 | 184쪽 | 인권-인물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헬렌켈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는 헬렌켈러의 삶을 다루면서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회제도를 고치려고 힘썼던 그녀의 인류애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겨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해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점자로 세상을 열다 : 한글 점자 만든 박두성

이미경 글 · 권정선 그림 | 우리교육 | 2006년 | 167쪽 | 인권-인물

이 책은 한평생 한글점자연구와 시각장애인교육에 헌신한 박두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학교 교사가 된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개발이 시작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그의 헌신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다르면 어때?

윤정선 글 · 홍지혜 그림 | 웃는돌고래 | 2014년 | 176쪽 | 다양성

우리는 모두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다름'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남과 달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따가운 시선을 보낸 이에게는 다른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종이밥

김중미 글 · 김환영 그림 | 낮은산 | 2002년 | 106쪽 | 함께 사는 세상

송이와 철이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는 할아버지와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할머니와 이렇게 넋이 가난하게 삽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 나가시고 오빠가 학교에 가고나면 송이는 밖에서 문이 잠긴 어두운 작은 방에서 혼자 하루를 보냅니다. 심심하고 배가 고플 땀 종이를 뜯어 먹곤 합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고단해 보이지만, 힘겨움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가는 모습 속에 따뜻함이 묻어 나옵니다.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다

서정홍 글 · 정가에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 2014년 | 120쪽 | 함께 사는 세상

서정홍 시인의 동시집으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총 4부로 1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2부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 3부는 이웃사람들의 이야기, 4부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의 시어 하나하나에서 가난한 이웃과 모든 생명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그 작은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흙 쿠키, 꿈과 희망을 구워요!

노경실 글 · 김윤경 그림 | 담푸스 | 2013년 | 86쪽 | 함께 사는 세상

진흙 쿠키? 우리는 소꿉장난에서나 만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한쪽에서 배가 고파 진흙쿠키를 만들어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가난했는데, 몇 해 전 지진으로 더 삶이 힘겨워진 아이티의 아이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진흙으로 쿠키를 구우며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들을 기억하고 모두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홍건국 글 · 김진희 그림 | 글담어린이 | 2013년 | 184쪽 | 함께 사는 세상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10명의 이야기를 통해 착한생각이 무엇인지, 착한생각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착한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착한생각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천사 특공대, 공통선생님을 지켜라!

서지원 글 · 설은영 그림 | 길벗스쿨 | 2010년 | 148쪽 | 인권의 이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관계 맺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 속 화를 다스리는 방법과 화를 내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학교에 온 공통 선생님과 반 아이들을 둘러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평화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통 선생님께서부터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된 이야기 속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

박정희 글 · 정병수 그림 | 아이세움 | 2002년 | 160쪽 | 인권-인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무엇에 잣대를 두나요? 남들보다 특출하고 똑똑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인가요? 여기 '엘리너 루스벨트'는 결코 특별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자신감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강한의지로 잘 이겨냈어요.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 인권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힘쓰고 또 힘썼지요.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람입니다.



크게 외쳐!

박현숙 글 · 김지현 그림 | 살림어린이 | 2011년 | 192쪽 | 함께 사는 세상

'한센병'이라는 걸 아나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멀리해온 차별이 심한 병입니다. 그들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어린나이에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을 그렸습니다. 병이 낫고 나면 전염이 되는 것도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멀리 하고자 하지요. 그들은 누구의 동정도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투명한 아이

안미란 글 · 김현주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0쪽 | 다양성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주민증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어느 날 세 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눈'이라는 4살 먹은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요. 무국적 아이 눈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인권이 있어요. 이 책 속 두 아이는 눈이에게 우주 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해요.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 글·그림 | 가브리엘 랩킨 엮음 | 배블링 북스 옮김 | 초록개구리 | 2008년 | 176쪽 | 평화

이제는 없어진 나라 '티베트'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난민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요. 그들을 그림으로 보듬고 엮어서 책이 나왔어요. '멀리 집을 떠나서', '씩씩한 난민으로 살아가기',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위대한 라마여!',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티베트', '세계에 평화를 주소서!'의 다섯 주제로 그림을 분류하여 채편집하였습니다. 이 그림 작업이 아이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심어주었지요.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야마모토 미카 글 | 한승동 옮김 | 길벗스쿨 | 2013년 | 168쪽 | 평화

지금도 지구촌 저 편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화를 지키다는 명목으로 폭탄이 투하되고 총을 들고 누군가를 쏘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이러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다가 총을 맞아 죽은 일본 기자, 야마모토 미카가 남긴 마지막 평화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여자, 군인들이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됨을 가슴 아프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돌

강재숙 글 · 오치근 그림 | 도토리숲 | 2015년 | 54쪽 | 평화

1톤 무게의 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의 돌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원폭투하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등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경남 합천에 있어요. 평화의 돌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던 곳에 아픔을 달래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1톤의 돌을 옮기는 일은 평화운동과 같습니다.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 움직여야 지구가 평화로운 것이지요.



평화의 소녀상

윤문영 글 · 그림 | 이윤진 영문 | 내인생의책 | 2015년 | 44쪽 | 평화

전쟁으로 약한 어린이,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힘들었지요. 특히 전쟁 중 침략한 국가에서 식민지의 여인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한 경우가 많아요. 평화의 소녀상은 동상이지요. 이 소녀상은 진실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 곳에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녀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이퐁 세탁소

원유순 글 · 백승민 그림 | 아이앤북 | 2012년 | 200쪽 | 다양성

아직도 나와 좀 다르다고 차별하나요?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웅이는 같은 아이들, 담임선생님까지 말과 행동으로 차별하는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습니다. 웅이 엄마도 베트남 사람인 것을 숨겨요. 적응의 힘에서 오는 반응이지요. 웅이와 웅이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현재는 세계문화가 함께 교류하는 이주배경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할 때 이주배경 사회는 건강해지지요.



할아버지 손

마거릿 H. 메이슨 글 · 플로이드 쿠퍼 그림 | 서예경 옮김 | 꿈교출판사 | 2013년 | 30쪽 | 차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될까요? 과거에 백인들은 흑인들과 같은 수영장이나 운동장, 교회, 학교 같은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한 차별이 있었지요. 이 그림책 속 할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지만, 흑인이 만든 빵은 백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차별로 빵 반죽을 할 수 없었지요. 흑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제는 손으로 뭐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조경희 글 · 원정민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4년 | 190쪽 | 노동권

감정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하고, 미안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마트직원이나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마트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구양순 여사를 통해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일회용 종이컵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잘못된 사회를 고치고자 노란조끼를 함께 입었습니다.’



황금깃털

정철아 글 · 소윤경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2년 | 235쪽 | 관계의 소중함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나요? 해미라는 아이는 친구를 왕따 시키는 일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요.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하게 되고 본인이 왕따가 되면서 괴로워하다가 황금깃털을 통해 과거 속으로 가서 과거를 지우지만, 결과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아요. 시간 여행을 다녀 온 해미는 말해요. “그래, 이제 나도 깨달았어.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그래요. 지금이 제일 소중한해요.



히나코와 걷는 길

오카다 나오코 글 · 노석미 그림 | 고향옥 옮김 | 보림 | 2006년 | 96쪽 | 장애

히나코는 걸을 때 뒤통거리고, 무슨 일이든 느려요. 그래서 히나코를 도와주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히나코는 오히려 화를 내요. 반면 히나코를 놀리고 무엇이든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는 아이가 있어요. 모두 나쁜 아이라 하지만 히나코는 그 아이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히나코는 도움 받는 것에서 차별을 느껴요. 동정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나눌 때 히나코와 함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찾아보기



책이름으로 찾아보기

- 16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 12 6번길을 지켜라 뚝딱
- 41 강냉이
- 16 같이 놀자, 루이!
- 41 개성빵
- 16 거짓말 같은 이야기
- 41 간수 동생, 강건미
- 41 검은 후드티 소년
- 42 경극이 사라진 날
- 16 고슴도치 아이
- 17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 줘!
- 42 국경을 넘는 아이들
- 17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 42 군화가 간다
- 17 굴러라 슈퍼 바퀴
- 42 그 꿈들
- 43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 43 김금이 우리 누나
- 17 까마귀 소년
- 18 까만 아기 양
- 18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 7 깜장 병아리
- 18 깡이의 꽃밭
- 43 꽃할머니
- 43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 44 나는 빈 라텐이 아니에요
- 44 나는 슈갈이다
- 44 나는 어린이 노동자
- 44 나는 어린이 병사
- 45 나는 태양
- 45 나는야, 늙은 5학년
- 45 나도 권리가 있어!
- 18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 19 나도 학교에 간다
- 45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46 나무 도장
- 4 나무를 만져보세요
- 46 나쁜 초콜릿
- 13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 46 나에게서 꿈이 있습니다
- 19 나와 우리
- 46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 7 날개 잃은 천사
- 47 날아간 작은 새
- 47 낡은 사진 속 이야기
- 47 낫쟁이 간다
- 19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 47 내 이름은 말랄라
- 19 내 이름은 이순덕
- 48 내 친구 씨름 왕자
- 20 너는 어디로 가니
- 20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 7 넌 (안) 작아
- 48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북한 아이들 이야기
- 48 눈으로 들어보렴
- 48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 20 다들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 49 달라도 괜찮아
- 7 달라도 친구
- 49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49 대장은 나야
- 8 더 커다란 대포를
- 20 도둑맞은 이름
- 49 돼지 이야기
- 50 뒷간 지키는 아이
- 21 뒷집 준범이
- 21 떠돌이 개 툼이의 일생
- 14 론도의 노래
- 21 롤라와 나
- 8 룰루
- 8 마법의 조막손
- 50 말하는 까만 돌
- 21 먹지 마! 곤충젤리

- 22 멋지다! 안별 가족
22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50 모르는 척
22 목기린 씨, 타세요!
8 못난이 내 친구
50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22 무지개
23 무지개 욕심괴물
9 민수야 힘내!
23 바람은 보이지 않아
23 바보 야쿠프
51 방과 후 운동장 교실
5 배고픔 없는 세상
23 벌집이 너무 좋아!
38 별별 학교 지구촌 친구들
24 보이지 않는 아이
51 보이지 않는 이야기
51 보이지 않는 적
51 봄이 오면 가께
52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52 불타는 옛 성
24 블룸카의 일기
24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24 비밀
39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25 빨간 불
52 빨래 바구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25 빠순이의 일기
52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53 사이공에서 엘라베마까지
53 사쿠라
53 살아 있는 모든 것들
25 새 할머니
25 새터민 이야기
9 서로를 보다
26 선생님은 몬스터!
53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54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5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권
2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26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54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어요!
9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26 수요일의 눈물
54 수진이와 큰개불알꽃
55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55 시간표 저편
55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 주세요!
27 신나게 자유롭게 땀
27 신발 신은 강아지
27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아침 달리다
55 악플 전쟁
56 악속
28 양들은 지금 파업 중
56 어느 날 우리 반에
공룡이 전학 왔다
56 어느 날 우리 집에
우주고양이가 도착했다
9 어떤 느낌일까?
56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다
57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57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28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28 얼음 땀!
57 엄마, 다녀올게요!
28 엄마랑 둘이서
29 엄마에게
57 역사 속 인권 이야기
29 오늘은 내가 스타!
29 완벽한 세상
29 왕가리 마타이
58 왜 나를 미워해
30 왜 내 동생이죠?
30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58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58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58 우리 엄마는 청소년노동자예요!
59 우리가 바꿀 수 있어!
30 우리는 손으로 말해요
30 우리는 학교에 가요
59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31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10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59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31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31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31 위를 봐요!
10 이상해
32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59 인권 논쟁
32 잘 자요, 대장
60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
32 적
32 점자 배우는 아이
60 점자로 세상을 열다 :
한글 점자 만든 박두성
60 조금 다르면 어때?
60 종이밥
61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나
33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33 지붕이 있는 집
15 진짜 투명인간
61 진흙 쿠키 꿈과 희망을 구워요!
33 집으로 가는 길
33 짧은 귀 토끼
61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61 천사 특공대,
공룡 선생님을 지켜라!
6 초코곰과 젤리곰
62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
40 춘희는 아기란다
34 카펫 소년의 선물
34 콧수염 형제
62 크게 외쳐!

34 털실 한 뭉치
62 투명한 아이
62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63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34 평화를 들려줄게
63 평화의 돌
63 평화의 소녀상
63 하이퐁 세탁소
64 할아버지 손
64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
늘도 스마일
35 행복한 우산마을
35 헨리의 자유상자
35 형 나를 지켜 줘
35 혼자 남은 착한 왕
64 황금깃털
64 히나코와 걷는 길



주제별로 찾아보기

가족

- 16 고슴도치 아이
- 19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 28 엄마랑 들어서

관계의 소중함

- 8 못난이 내 친구
- 16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 17 까마귀 소년
- 19 나와 우리
- 19 내 이름은 이순덕
- 20 도둑맞은 이름
- 24 보이지 않는 아이
- 26 선생님은 몬스터!
- 28 양들은 지금 파업 중
- 28 열음 땡!
- 44 나는 슈갈이다
- 45 나는 태양
- 45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48 내 친구 씨름 왕자
- 50 말하는 까만 돌
- 50 모르는 책
- 51 방과 후 운동장 교실
- 51 보이지 않는 적
- 55 시간표 저편

55 악플 전쟁

64 황금깃털

교육받을 권리

- 19 나도 학교에 간다
- 30 우리는 학교에 가요

노동권

- 39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 58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 64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다양성

- 7 깜장 병아리
- 7 넌 (안) 작아
- 7 달라도 친구
- 8 룰루
- 9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 6 초코곰과 젤리곰
- 20 다들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 22 멋지다! 안별 가족
- 22 목기린 씨, 타세요!
- 23 벌집이 너무 좋아!
- 33 짧은 귀 토끼

35 형 나를 지켜 줘

46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48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49 달라도 괜찮아

50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

54 수진이와 큰개불알꽃

55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60 조금 다르면 어때?

62 투명한 아이

63 하이퐁 세탁소

동물권리

- 9 서로를 보다
- 21 떠돌이 개 툼이의 일생
- 27 신발 신은 강아지
- 49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49 돼지 이야기

북한인권

- 25 새터민 이야기
- 41 개성빵
- 42 국경을 넘는 아이들
- 45 나는야, 늙은 5학년
- 48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북한 아이들 이야기

52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세대간의 이해

18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25 새 할머니

아동성폭력

13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24 비밀

아동인권

27 신나게 자유롭게 뽀

34 킷펫 소년의 선물

43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44 나는 어린이 노동자

44 나는 어린이 병사 :

46 나쁜 초콜릿

38 별별 학교 지구촌 친구들

52 빨래 바꾸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양성평등

10 이상해

25 뽀순이의 일기

57 어린이를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인권의 이해

10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29 완벽한 세상

31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31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

34 콧수염 형제

35 헨리의 자유상자

45 나도 권리가 있어!

46 나에게서 꿈이 있습니다

52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53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54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권

56 어느 날 우리 집에
우주고양이가 도착했다

56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다

57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57 역사 속 인권 이야기

58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59 우리가 바꿀 수 있어!

59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59 인권 논쟁
61 천사 특공대,
공룡 선생님을 지켜라!

인권-인물

29 왕가리 마타이

60 장애를 넘어 인류애에 이르는
헬렌 켈러

60 점자로 세상을 열다 :
한글 점자 만든 박두성

62 최초의 여성 유엔 인권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

자신의 소중함

18 까만 아기 양

21 먹지 마! 곤충젤리

29 오늘은 내가 스타!

장애

4 나무를 만져보세요

7 날개 잃은 천사

8 마법의 조각상

9 민수야 힘내!

9 어떤 느낌일까?

17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 줘!

17 굴러라 슈퍼 바퀴

18 깡이의 꽃밭

18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20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21 롤라와 나

22 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22 무지개

23 바람은 보이지 않아

27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30 왜 내 동생이죠?

30 우리는 손으로 말해요

32 점자 배우는 아이

15 진짜 투명인간

41 건수 동생, 강건미

47 날아간 작은 새

48 눈으로 들어보렴

49 대장은 나야

- 51 봄이 오면 가계
- 57 엄마, 다녀올게요!
- 58 왜 나를 미워해
- 59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 64 하나코와 걷는 길

차별

- 30 왜 차별하면 안 되나요
- 41 검은 후드티 소년
- 47 낫짚이 간다
- 50 뒷간 지키는 아이
- 56 어느 날 우리 반에
공룡이 전학 왔다
- 64 할아버지 손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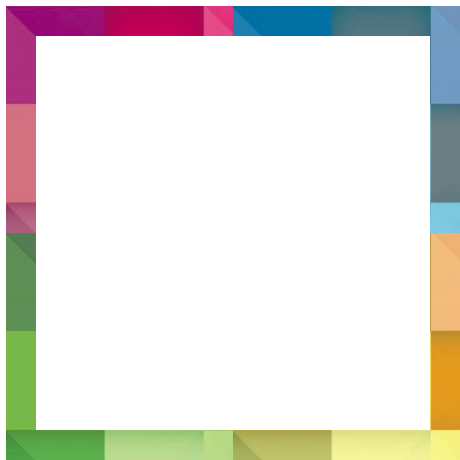
- 8 더 커다란 대포를
- 16 거짓말 같은 이야기
- 14 론도의 노래
- 23 무지개 욕심괴물
- 24 블룸카의 일기
- 24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 2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음
- 26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 26 수요일의 눈물
- 27 아낌 달리다
- 28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 29 엄마에게
- 32 잘 자요, 대장

- 32 적
- 33 집으로 가는 길
- 34 털실 한 뭉치
- 34 평화를 들려줄게
- 41 강냉이
- 42 경극이 사라진 날
- 42 군화가 간다
- 42 그 꿈들
- 43 김금이 우리 누나
- 43 꽃할머니
- 44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 46 나무 도장
- 47 낡은 사진 속 이야기
- 47 내 이름은 말랄라
- 52 불타는 옛 성
- 53 사이공에서 엘라배마까지
- 53 사쿠라
- 55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 주세요!
- 40 춘회는 아기란다
- 62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 63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 63 평화의 돌
- 63 평화의 소녀상

함께 사는 세상

- 5 배고픔 없는 세상
- 12 6번길을 지켜라 똑딱
- 16 같이 놀자, 루이!
- 17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 20 너는 어디로 가니
- 21 뒷집 준범이
- 23 바보 야쿠프
- 25 빨간 볼
- 31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 31 위를 봐요!
- 32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 33 지구촌 곳곳에
너의 손길이 필요해
- 33 지붕이 있는 집
- 35 행복한 우산마을
- 35 혼자 남은 착한 왕
- 43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 51 보이지 않는 이야기
- 53 살아 있는 모든 것들
- 54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 54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 56 약속
- 58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 60 종이밥
- 61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다
- 61 진흙 쿠키 꿈과 희망을 구워요!
- 61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 62 크게 외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입법·사법·행정부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인권 관련 법·정책·제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인권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도서관으로

- 인권정보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소장자료 검색과 위원회 간행물 원문정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회,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각 인권사무소에는 인권도서관 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 **02-2125-9681~3**

홈페이지 library.humanrights.go.kr

